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Apr. 2019
Vol.7 No.3

- 작은목자 훈련
- 주안예생명 시즌 2
- EM / 교육부 소식
- 부활절 캠프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성경퀴즈대회 '바이블 골든벨대회' 가 벨리, 엠피채플 ICY 에서 열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자신있게 정답지를 들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벨리채플에서 우승한 Samuel Cho(위) 군과 MP채플 Steve Min(아래) 군 (사진: 양영 기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 ICY Bible Golden Bell

3/24(주일) 기대하고 기대하던 ICY 바이블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께서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집에서도 꾸준히 스타디 가이드를 공부해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질문들은 총 3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첫번째는 주일 설교, 두번째는 QT 내용이었던 마가복음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성

경구절 암송이였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학생들도 이 골든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버를 타고 교회를 왔었고 성경을 한번도 펴본적 없던 아이들이 한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어 끝까지 스타디 가이드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고 기특하였습니다.

벨리와 MP채플 합하여 약 8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데요- 벨리에서는 대상: Samuel Cho, 1등: Jonathan Yi, MP에서는 대상: Steve Min, 1등: Kailyn McGee 가 각각 수

상하였습니다.

시상식은 31일 각 채플 장년예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수상자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서프라이즈로 선물해 주셔서 이 대회에 더 큰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진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항상 ICY를 한 마음으로 서포트 해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김민재 전도사 |



■ 작은 목자 훈련

지난 3월 7일에 주안예교회에서는 MP 채플가족과 합동으로 벨리 채플에서 큰 목자 작은 목자 훈련이 있었다.

최혁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목자 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자들의 바른 신앙관, 바른 자세 그리고 목원 돌봄 속에서 꼭 해야 하는 지침서들을 교육 하시고 설명하여 주셨다. 가장 작은 공동체이며 목회의 현장인 목장에서 목자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며 동질의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하셨다.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목원들을 위한 새벽기도와 말씀을 묵상하

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목자가 먼저 훈련 되어지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목자와 목원과의 관계성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될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히 훈련하고 행하여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을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우리자신들을 돌아보는 훈련장인 것 같이 느껴짐에 그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으니 감사한 일이며 올 한해를 함께 뛰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목자, 작은 목자, 그리고 목원들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 임용자 기자 |

■ 주안에생명 시즌 2

지난 2월에 마무리를 했던 주안에생명 시즌 1에 이어서 주안에생명 시즌 2가 3월 6일 과 8일에 각 채플별로 시작이 되었다.

주안에생명 시즌 2는 “기도” “교회” “천사” 등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막연했던 지식과, 믿음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수있는 최고의 선물같은 시간이 되고 있다.

하루이과를 끝낸 후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믿음을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주안예교회의 교인들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한주도 놓치지 않고있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목사님께서도 한 말씀이라도 더 전달해 주시려는 열정을 여과없이 드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기독교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죄와 허물을 이겨내고 복음의 물결만이 주안예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퍼져가게 되는 그날을 소망해 본다.

| 오희경 기자 |

■ 제11기 주안에말씀

제11기 '주안에말씀'이 2월 26일과 3월 1일 저녁 양쪽 채플에서 막을 올렸다. 첫째날 이정미 권사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를 시작으로 20여분 성도님들의 통독에 대한 굳은 다짐과 결단으로 통독하는 내내 그 열기가 뜨거웠다.

2019년 6월 28일까지 총18회 동안 진행될 주안에말씀은 벨리채플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까지이며, MP채플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5분~9시 45분 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 이성은 기자 |



■ 교우동정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예배에 나온 아기들, 광재은-김혜민 성도의 쌍둥이 하늘, 나라(왼쪽부터), 박동준-김지혜 성도의 딸 세린, 맨 오른쪽은 목사님에게 안겨 축복기도를 받는 안건우-정지혜 집사의 아들 하준 <사진: 최호기 기자>

■ 포토 에세이

나의 하루는...



내 이름은 루루, 이번달이 나의 돌이다. 그래도 인간 나이론 꽃다운 일곱살 소녀다. 나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양자삼아 주신 아빠와 엄마의 코를 열심히 핥아주면 된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변과 소변을 한군데 정해진 곳에 보면 아주 기분 좋아하신다. 가끔 나도 집에 아무도 없으면 심심해서 짜증을 부리곤 한다. 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꼬리꼬리 냄새나는 양말 아님 신발들을 씹어서 땀구를 내는 게 취미 생활이다. 아무 것도 잘할 수 없는 나를 조건없이 사랑해주는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 난 이 맘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게 똑같은 맘이 아닐까
| 최호기(Dog Groomer) |

■ 주안에일꾼/ 브니엘 카페 김헬렌, 테리 이 집사(밸리)

바늘과 실처럼 섬김의 콧비

4월 주안에일꾼을 찾아 매주 향기로운 커피와 시원한 음료, 영양 가득한 각종 빵에 달달한 간식 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브니엘 카페로 가 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부지런히 카페로 달려 오셔서 아름다운 섬김의 향을 물씬 풍기시는 실과 바늘과 같은 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향기의 주인공은 헬렌 김 집사님과 테리 이 집사님으로 두 집사님은 맘과 손이 척척 맞아 서로의 필요함을 채우시면서 성도님들을 최고로 섬기시니 감사합니다.



밸리채플에 출석하신지는 약 3년이 되셨고 작년 어느 날, 브니엘에 일손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브니엘 카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므로 오늘도 그 훈훈함은 커피향과 함께 주안에교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두 집사님을 보니 떠오르는 노래가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노래 가사에 듬뿍 담아 감미로운 목소리로 두 집사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 박경숙 기자 |

정경배 집사

(밸리) 밸리 16 목장의 정경배 집사님의 아들 윌리엄 정 형제는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올해에는 하버드대학원 케네디스쿨에 입학하게 됨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구 장로(밸리)

거북이 마라톤을 완주하신 영광의 얼굴들... LA 마라톤이 아닌 그리피스 팍에서 열린 건강걷기대회에서 완주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완주 기념 상품으로 라면까지 타 와서 더욱더 즐거우셨다고 하시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출전 하기를 기대한다.



■ KARIS 프로그램

방과 후 자녀들 맡겨주세요

3월 31일 주일 2부 예배 후, 2시 40분 부터 40분 가량 MP채플 임시처소의 IC KIDZ 예배실에서 '카리스(KARIS)설명회' 와 학부모 미팅이 있었다.

KARIS PROGRAM은 4월 13일~6월 22일까지 10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9시 30분 부터 1시30분 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벨리채플이다.

바쁘신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Home-work 도 도와주며 각종 악기나 스포츠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의도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만 그 외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서도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대상은 1학년~8학년이며 꼭 주안예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김민재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된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 한글학교

태극기 그리고 만세 외치며 3·1절 의미 배워

지난 3월 1일 삼일절을 맞이하여 주안예교회의 한글학교(교장: 장은경)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삼일절 기념 행사를 가졌다. 삼일절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 학교 교사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같이 태극기를 직접 손으로 멋있게 만든 후에, 학생들은 "대한 독립 만세" 를 외치며 삼일절 기념 행사를 의미 있게 끝마쳤다. | 임용자 기자 |



■ 학부모 미팅

7월 VBS · 양육세미나 준비 논의

지난 3월 3일 주일, MP 채플에서 식사 후 IC Joy Room 에서 3시 30분부터 IC JOY&IC KIDZ 학부모 미팅이 있었다. 이니콜 전도사님의 진행으로 10여분의 부모님들과 함께한 이번 미팅에서는 7월에 있을 VBS의 시기와 일정에 대한 논의와 많은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앞으로 있을 '양육세미나' 개최시 다뤄야 할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논했다.

'양육세미나' 에서 다뤄질 주제로는 이 시대의 올바른지 않은 이슈들 (1)성(Sex), (2)젠더(Gender), (3)미디어, (4)관계회복, (5) 눈높이 대화에 대해 성경적인 컨셉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다. 이날, 전도사님과 교사들, 부모들은 매일 학교나 사회에서 비성경적인 문제들과 영적 전쟁을 치뤄야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로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 이성은 기자 |

교육부 학생들을 위한

KARIS PROGRAM
04.13-6.22

10주 과정

도요일 프로그램

SATURDAY ENRICHMENT PROGRAM

» 대상: 1학년 - 8학년
» 회비: \$100 per student
» 장소: 주안예교회 벨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Schedule

9:30-9:45a..... Worship (15분)
9:45-10:45a..... Homework Hall (1시간)
10:45-11:00a..... Break (15분)
11:00-12:00p..... Academic Recreation Class (ARC) (1시간)
12:00-12:30p..... Lunch (교실에서 제공) (30분)
12:30-1:15p..... Science Experiments (45분)
1:15-1:30p..... Clean-up

+ ARC: soccer, basketball, clay, graphic design (only middle school) 등
+ Science Experiments: 과학 실험, 가래 만들기, Skittles Art, 핸드메이드 와이스크림 등

Important to Note

1) Middle School 학생들은 4/10 전에 개인 캘린더 포토샷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안예교회 오피스로 가져오시면 assist 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클래스를 듣는 동안 포토샷 라이선스가 제공됩니다.

2) Field Trip이 2번 있습니다. (Fee 별도)

3) 4/27 은 '주안예가정' 세미나 관계로 휴강입니다.
* Details of this program are subject to change!
* 문의: 김민재 전도사 (818) 363-5887

주안예교회



■ ICY 민유선 학부모회장 선출(MP)

학부모 미팅에서는 앞으로 있을 ICY의 큰 이벤트에 대해 설명 하시고,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팅에서 PSG ICY 회장으로 민유선집사님이 선출 되셨고, "다른 ICY 부모님과 제가 힘을 합쳐야 ICY를 든든하게 써포트 할수 있다" 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하셨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돕겠다고 입을 모았다. | 이성은 기자 |

Awesome level of teaching that spoke to my heart!

My wife Misuk, and I moved to Pasadena in February of 2019. Before we moved here we were invited to attend ICCC by a friend in the fall of 2018. We knew we would be looking for a church when we moved, so we gladly accepted the invitation.

I speak very little Korean so I was optimistic when I was told there was translation for many of the services but I was unsure of how I would receive the message through this method.

The first time I heard the message by Pastor Choi I was extremely impressed with his skill at teaching. I was brought up in a christian home and have studied the scriptures since my youth. I have been privileged to hear many accomplished teachers and pastors in America such as Billy Graham, John MacArthur, Chuck Smith and many others both good teachers and some who were well, "not so good".

I was extremely touched by Pastor Choi and his ability to communicate the word of God so effectively and even through a translator. Each time we came back it was the same awesome level of teaching that spoke to my heart. I feel very blessed to be able to learn more and get closer to God through this wonderful church. Everyone has been so very kind and welcoming!

저희 부부는 지난 2월 패서디나로 이사오기 전 지난해 가을 주안예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주안예교회로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지만 통역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최혁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의 능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빌리 그라함, 존 맥아더,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통역을 통해서지만 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전해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동일한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주안예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게 된 것이 큰 복입니다.

모든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Ernie Baker, Misuk Baker 성도(MP)

고쳐야될 말: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는 보통 회중기도 가운데 사용되던 말이다. 회중기도는 대부분 설교 전이나 찬양대의 찬양 전에 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됐고 여러 순서가 진행된 후에 회중기도를 하게 된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웁고'라고 기도한다면, 예배의 시작을 다시 알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순서들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돼 버린다.

'거룩한 생활습관이 일상이 되길'

안녕하십니까, 주안예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 가정(박용진, 강연남, 박서인, 박민호)은 한국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회복교회를 섬기다 2019년 2월말에 캘리포니아



박용진 집사, 박민호 성도(벨리)

에 왔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9년 일 년 동안 UCSB에 Visiting scholar로 오게 되었고, 지금 산타바바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안예교회와 최혁 목사님의 설교는 LA MP채플에서 섬기시는 형님네 가정의 소개로 이미 한국에서 CD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3주 동안 주안예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9년 일 년의 연구 년을 어떻게 보낼지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 중에서 평소 가장 좋아하고 싶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22의 "하나님과 동행하며(walk with God)"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원하는 것 보다 더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며 그분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제가 어느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의 마음에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 연구 그리고 대학행정 등으로 24시간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늘 지치고 피곤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안예교회의 예배가 제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안예교회의 예배, 최혁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저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습관이 저에게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이 저의 가정과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딸 서인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A Teacher's Life

Role Model

A male student broke up with his girlfriend in March. As he was sharing the incident, the young man started to cry in front of me. As I tried to console him, he began to open up by sharing his other struggles such as anger. His past involvement with many "gang-like" activities had "forced" him to act tough in front of his peers despite his gentle soul. Our conversation started to shift towards personal values for the future. He soon realized the importance of sacrifice in a meaningful relationship. In the end, he hugged and said that he respected me like a dad. (His dad was too busy to talk to him) It touched me and I reflected on my relationship with my teenage son.

Being a Christian, how do parents develop that bond with our children? Do we have the comfort level to discuss the sorrows, pains, or failures in their lives? These stories are to encourage us to have meaningful reflections and spiritual growth. How's your communication at home?

Please share your thoughts via email button2000@sbc-global.net.

| Simon Cho |



Mid-Life Crisis?!

Great news! EM has created a new small group for members who are married, have kids, or both. If you do not meet any of these conditions and are in your 30's or older, you can join us too. The goal is to develop a strong bond through meaningful fellowship that leads to spiritual growth. If you are looking for an in-depth bible discussion pertaining to difficult life issues, please join us at 10am in the old MP chapel.

Abundant Life Reflection



Hannah Chung I feel so happy that I joined this abundant life which helped me to be more of a disciple of God in the real world. Also another good thing was that at the moment I was going through a very hard time but when I joined this bible study my life changed in a great way in God.

Gloria Yi Abundant Life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how I should be with God and for God. I believe that I've grown spiritually placing more trust into God and being more open to my Abundant Life group.



Kevin Kang In the beginning of this Bible study, I used to not be able to sleep well. I would get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worrying. In the later chapters my sleeping habits changed, I slept right through until morning. I no longer had those same worries. The problems are still there, but the burden was lifted from me. I believed that God loves me more than anything. The more I learned, the more excited I got, and the more I wanted to learn more about God.

Isaac Han There is one thing that I have taken very seriously over the past 6 weeks that I have been placed in this Bible study; That is the effort to meet God. I took it as a stepping stone into my dry spiritual life.



Eric Kwon I also grew in the habit of reading the bible and having devotional time at home; it was something I never did by myself. I have decided to desire God more in my life and to realize more of the blessings that he has given me.

Paul Yang "All in all, I am grateful for the first part of Abundant Life, and am so amazed at how it has prepared me spiritually as a whole, and for the next couple of parts. It has humbled me, and given me a new resolve to always repent, strive to love others, and keep my heart open to the Lord." The more I learned, the more excited I got, and the more I wanted to learn more about God.



Emily Nguyen IC Abundant Life provided a safe place for fellowship and a feeling of unity for his children to learn more about him. It has given me a great sense of pride, established a strong foundation, and highlighted the power of a single bible verse and the amazing message given in each bible study.

Shane Kim Through Abundant Life, I learned, we Christians are meek beings; however, through Christ we are born again and redeemed in the Spirit. It has helped me to be reminded of God's love and mercy for us, and has applied a heart that wants to worship!



Yehju Park These six weeks of Abundant Life were not only a good lesson to me during the time and process but it served to be a great reminder to me afterwards.

Sam Bae Repentance without action was what I learned. While Being a Christian all my life I realized how inadequate my spiritual life was after this bible study.





■ ICY 농구대회

3월 9일 오후 2시~5시까지 벨리채플에서 EM주최 바스켓볼 토너먼트가 있었다. 선수들 21명과 그날 음식준비와 사진촬영 또, 경기의 진행을 도와주신 분들도 14분이나 계셨다.

EM청년부와 ICY의 고등학생들이 힘을 모아 뛰며 땀으로 하나가 된 이날 경기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 기뻐하며, 격려하고 함께 하는 '젊음의 열전' 그 자체였다.
| 이성은 기자 |



■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선물처럼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았으면...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다. 아프리카도 다름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식당에 앉아 있는 가족의 손에 모두 셀폰이 있고, 식구의 대화보다 자기 화면에 더 몰두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 할 수 있었다. 아파트 주인 집 딸은 국민 학생 TORY Burch 구두를 신고 있었으나 그 가치를 알까? 빈부의 차이는 어디나 마찬가지로이다.

작년에 왔을 때, 가난한 동네를 심방 다닐 때면 뒤따라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던 청년 중에 한 여자에는 교회를 안 오고 있단다. 임신한 사실이 부끄러워서인지, 고등학교 디렉터가 여학생만을 모아둔 터이니 말씀을 전해 달라는 간청을 하신다. 에베소서 5:1-5 말씀을 갖고 우상 숭배, 탐욕, 음란을 가리키려니 알아 듣지 못하는 표정이다. 영어도 쉬운 것만, 성경도 쉬운 구절만 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 등 익숙한 단어가 좋은 모양이다.

우리가 웨딩 드레스 아주 예쁜 것들을 갖고 왔는데 너희는 꼭 결혼식하고 너희의 결혼식 첫날이 너희의 첫 성경험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리고 오늘 말한 모든 것의 결론이고 요약이라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아이들은 점심 시간을 지난 오후 2시경이 되었으니 모두 배가 고프고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먹을 수 있는 점심이 더 기다려 지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 1,000명분 볶음짜장을 갖고 와서 1300명의 점심 식사를 준비 했었다. 이들에겐 생전 처음 먹어 보는 까만밥.

시장에 가서 80kg 양파를 주문 할 때부터 소동이 났다. 아무도 그 분량의 물건을 갖고 파는 집이 없었다. 이 집 저 집에서 좌판에 깔아 놓은 양파를 거두어서 80kg를 만든다. 그렇게 많은 밥을 해 본 적이 없는 엄마들이 밥을 제대로 할 리가 없고, 국수는 더욱이 구하기도 힘들어서 밥으로 정했는데 제대로 밥이 만들어 지지 않아서 푸기도 힘이 들었다. 그러나 주일 날 800명의 아이들, 고등 학생들, 브룬디, 우간다, 르완다의 목사님들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어린 아이들은 점심을 허로 활으며 맛있게 먹는다. 짜장은 세계 어린이들한테는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한국 음식 같다.

이 수도를 떠나면 교회를 오기 위해 하루에 15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선교사님의 설명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선교사님, 그 아이들에게만 나눠 주세요. 스틱 알사탕을 드렸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캔디에 익숙하지 않아서 알사탕을 주면 먹다가 목에 걸리는 일을 작년에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스틱 캔디를 사 갖고 갔었다. 선교센터의 여자들에게 줄 선물로 각양 각색의 스카프를 준비해 갔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각자 목에 예쁜 스카프를 걸고 내 앞을 왔다 갔다 한다. “권사님, 권사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눈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더위도 비가 오면 추워지고 목이 추우면 감기 걸릴까 해서 수하물 초과 요금을 별도로 물면서까지 갖고 가기를 잘한 것 같다. 무엇이든 다 필요한 아프리카. 작은 것도 감사하며 수줍어 하며 받아들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살갑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300명분의 짜장밥을 만들기 위한 선교대원의 손길이 바쁘다.



| 이예스더 기자 |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 보기

「주인에게」
CAMP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019 7/3(수)-7/6(토)
Murrieta Hot Springs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안에일꾼/ Sue Han 집사(MP)

EM 사역 위해 한결같은 섬김

현재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한인들은 1세대를 시작으로 1.5세대와 2세대를 넘어 3, 4세대를 지나면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각 자의 영역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안예교회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EM사역을 위해 마음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 집사님을 발견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SUE HAN 집사님은 영어가 더 편하시면서도 귀엽게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지난 6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안예교회를 섬기시는 SUE집사님은 현재 매 주 EM 간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간식을 준비하시는 집사님의 훈훈한 손길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M 간식준비로 분주하게 걸어 다니시는 집사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더욱 더 아름답기만 합니다.

물 한 대접을 섬겨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집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박경숙 기자 |

■ 사역국 소개/ 환경미화국(밸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깨끗이

올해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환경 미화국을 소개합니다. 이성근 안수집사님이 국장으로 섬기고있는 환경미화국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구석 구석을 깨끗하게 돌보는 사역국입니다.



현재 화장실 청소는 ICY 학생들과 시무장로님들께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한 젊은 부부 집사님은 2층 복도 청소를 담당 하십니다. 또한 각 사역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소는 각 사역국에서 청소와 관리를 하십니다. 합리적으로 일을 분담함과 또 주중에 가능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창문 등을 닦으며 청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성전이 깨끗하도록 봉사하심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성근 국장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환경 미화국의 멤버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항상 본인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떠나기 전 정리정돈만 하여주셔도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는 항상 깨끗합니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 임용자 기자 |



■ 배드민턴 토너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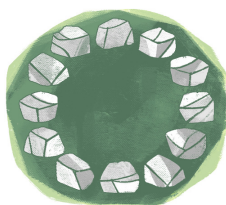
50여 동호인들 열띤 실력 발휘

제1회 배드민턴 토너먼트 대회가 지난 토요일 3월 30일에 밸리 주안예교회 체육관에서 열렸다. 50여명의 회원들 간의 열띤 경기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펼쳐졌으며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한 회원들께는 대상으로 200불 상당의 고급 라켓이 상품으로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가방 등 많은 상품으로 인하여 후끈 달아오른 열기는 체육관이 불을 뿜는것 같았다. 제이콥 정 회장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양한 회원들의 모임이지만 건강증진과 화합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기쁨이 대단하다고 하였고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주안예 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해달라고 하였다.

| 임용자 기자 |

[인 더 바이블] 길갈(Gilgal)

히브리어로 '길갈'은 동그라미 또는 바퀴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동쪽 변두리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시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 열두 개의 돌을 이곳에 놓았습니다.

길갈은 히브리어 '갈랄' (굴리다, 없애다)과 발음이 비슷해

불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수 5:9-12, 이하 새번역)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바로에게서 풀려난 것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 국민일보 |

■ 나의 신앙 나의 고백

다시 성경말씀에 집중하며

불교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부모님 따라 절에 다니며 성장했다. 미국에 유학 온 후에 교회에 가면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부모님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태어나 처음으로 18살에 옥스나드 개척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분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친척, 가족도 없는 미국땅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믿음도 없었지만 나도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다음에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와드려야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다.



민유선 집사(MP)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믿음도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불평에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삶으로 지칠때로 지친 나를 붙잡혀 여기시고 다시금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 지인분께서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지교회의 트레스 피야스(힐링캠프) 회비를 내셔서 거절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그곳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싫었고 찬양할때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너무 불편했고 힘든 시간들이었다. 내려오기 하루 전밤에 여기 올라온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보여주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이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보여주세요..." 방언과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체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이후로 나의 변화된 삶으로 남편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채워져 예배와 봉사를 하여도 힘들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다.

2년전 부터 신앙에 굴곡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주안에 교회에서 다시 성경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기위해 성장중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 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다짐해본다.

■ 주안에생명 소감

초보신자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예수님, 구원, 죄, 회개, 성경 등등 "주안에생명"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그리스도인 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있어야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며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매일 사용하는 일상용어가 되었습니다.



홍영표 안수집사 (벨리)

올해가 시작되면서 "주안에생명"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주제들을 다시 배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미 알고있지만 다시 복습해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첫번째 강의인 "인간과 죄" 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날 마치 처음 듣는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지식이었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강의가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했던 이유를 다시 배우고 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들으며 구원받은 위치에 과연 나는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나는 초보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야할 나는 거듭나게 역사 하는 생명의 씨앗을 "지식"이라는 수단으로 머리에만 넣었지 "진리" 로써 내 마음에 심지않고 있었습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안에생명"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들어가며 이제는 "하늘나라" 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을 때 새롭게 얻는 기쁨과 충만함을 제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안에생명"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초보신자의 마음으로 그 곳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얻는 씨앗이 그 곳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은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평생 동안 머리가 아닌 마음판에 계속 심어져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안에생명" 교육과정을 통해 생명의 씨앗을 얻어 믿음의 뿌리를 올바르게 확고하게 내리도록 인도하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의 증인 변화된 삶

나는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후 얼마간은 교회생활이 생소한 경우가 많았다. 45년 전이니까 꽤 오래된 일인데 나에게 첫 부활절은 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12월에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부활절에 남편과 함께 여의도 부활절 새벽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솔직히 부활절의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하는 날이란 것만 알고 참가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3일이나 지난 후에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잘 믿기지가 않았다.

집회장에 도착해서 우선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놀랐다. 그 큰 광장이 거의 꽉 찰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정하였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하며 부정하던 형제 디모데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그 날의 감동이 내 믿음이 자라나는데 기초가 되고 지금까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나운자 권사(MP)

내 신앙의 최고의 소망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나에게 부활절은 낯설지 않은 교회행사 중에 큰 행사이다. 매년 4월 부활주일이면 그냥 떠오르는게 여러가지 색으로 장식된 얼룩달룩한 계란이다. 어렸을 때에는 그 계란의 의미도 모른채 좀 심심한 하얀계란이 치장하여 이쁘게 된 그 계란을 갖고싶어 부활절을 기다렸다. 그러던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한 다음의 부활절은 내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주는 내 신앙고백중에 고백이 되었다.

부활의 신앙이 내 마지막 소망이기에 나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싶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2019년도 부활절을 기대한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앞에서 나는 내 영과 혼이 날마다 살아있는지 우리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앞에 나를 비추어본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내 영혼육이 다시 부활하여 내 사랑 나의 신랑되신 예수님옆에 설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기도한다.



박경숙 권사(MP)

■ 텃밭 가꾸기/ 블루베리 재배

건강에 탁월한 효능, 화분에 잘 자라

지난 3월호에서 소개해 드린 토마토와 같이 LA Time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블루베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 블루베리 효능: 여러 가지 암 예방과 눈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고 노화방지와 기억력 향상, 혈관성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화분에서 가꾸기: 블루베리는 산성 땅에 심고 산성 거름을 주어야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주어야 하고 물이 잘 빠지는 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 맞는 땅이 있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장이나 너서리에서 알맞은 흙에다 심어 키운 것을 구입해 가꾸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 4월이 적당한 시기: 블루베리는 4월에 많이 열려서 한창 커가는 중이고 5월, 6월에 수확하게 됩니다. 4월에 너서리나 농장에서 열매가 열려있는 것들을

보고 적합한 것을 구입해서 키우면 되는데 5갤런정도 크기의 화분에 심겨있는 것이 여러모로 적당합니다.

* 화분 관리: 햇빛이 잘 쬐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화분을 놓고 물을 2~3일에 한번 1/2갤런 정도 줍니다. 블루베리 열매가 초록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고 다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면 수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열매를 다 딴 후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에 거름을 주는데 Home Depot나 너서리에서 Azalea Food란 유기농 비료를 사서 5갤런 화분을 기준으로 한 줍정도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12월에 Azalea food 거름을 한 번 더 주면 내년 1, 2월에 다시 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 1,2년 후 나무가 커지면 15 갤런 크기의 화분에 옮겨 심으면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 나형철 기자 |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10)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번 달에는 Public Charge 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와 시행되고 있는 규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Public Charge 란 말은 국가의 보조에 의지하는 생활 보호 대상자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자주 등장 하는 이 말은 기존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 보조에 의존해야하는 보호 대상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는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비자 체류 연장 혹은 체류 목적 변경등을 신청했을 경우나 영주권 신청시에 확인해야 하는 이민 행정 절차이며 이미 영주권을 받는 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시에는 이의 서류 심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베푸는 혜택중 두가지가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데 이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 즉 CalWORKs, CAPI 혹은 GR 이나 Medi - Cal 을 이용하여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즉 요양원이나 양로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는 가정 폭력 피해자이거나 혹은 이 혜택이 생활하는 유일한 수입원이 아닌 일부 수입이 있

Public Charge

<현금보조·메디칼 알아들 짐>

노재덕 집사
(SSA 근무)



으나 이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없을 경우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법의 내용은 현금 보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Food Stamps (가주에서는 Calfresh 로 부르라고 있습니다)나 일반 메디칼 혜택, 심지어는 저소득 아파트 혜택을 받는 이 들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시에도 이 법이 적용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은 아직 조정 단계에 있으며 통과 된다면 통과 시기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재정보증의 필요가 없는 종류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A County 에는 3백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노동력으로 벌어 들이는 수입이 County 전체 수입의 35.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시간 그리고 많은 수정 작업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를 미리 걱정하고 필요한 혜택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5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